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두자산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국내 국공채를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채권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퇴직연금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 제1호(채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주식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퇴직연금업종일등 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신탁재산의 40% 이하를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공채 등의 국내 채권에 투자하여 신용위험을 최소화 하면서 안정적인 이자 수익과 함께 투자한 채권의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추구합니다.

- 신탁재산의 40% 이하를 대형 우량주 중심의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1,038억 원

-채권모투자신탁 913억 원

-주식모투자신탁 622억 원

펀드유형 채권혼합형
- 채권편입비: 60% 이상
- 주식편입비: 40% 이하

설정일

(운용펀드 : 2006년 01월 05일)

- 클래스 C : 2011년 11월 01일

- 클래스 C-E : 2017년 08월 18일

- 클래스 C-F : 2012년 03월 30일

벤치마크 KOSPI 35% + 매경BP종합(국공채) 40% + 매경BP종합(A-이상회사채2~3년) 20% + KAP Call 5%

신탁업자 국민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3영업일	4영업일
17시 경과후	4영업일	5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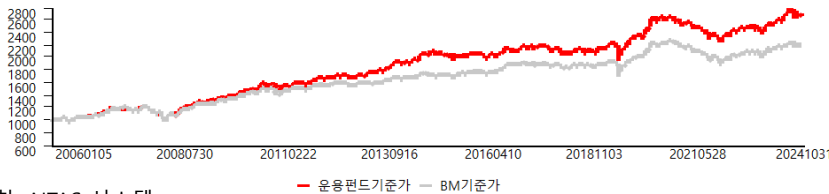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4등급(보통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설정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운용펀드	1.02%	-2.32%	3.14%	13.02%	17.15%	6.39%	26.19%	168.32%
클래스 C	0.95%	-2.52%	2.73%	12.14%	15.30%	3.86%	21.25%	62.01%
클래스 C-E	0.97%	-2.45%	2.87%	12.43%	15.92%	4.70%	22.88%	23.09%
클래스 C-F	0.99%	-2.39%	2.99%	12.69%	16.46%	5.45%	24.34%	61.54%
벤치마크	-0.49%	-2.06%	0.68%	9.86%	13.37%	1.11%	16.24%	118.03%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자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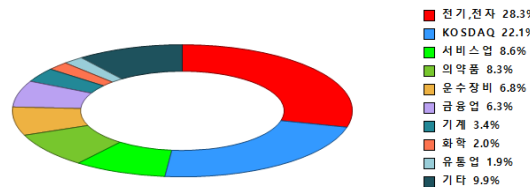
출처: AITAS 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4년 10월말 기준)

<전체>



<주식 업종별> 주식모투자신탁 편입 비중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4년 10월말, 주식모투자신탁 기준 주식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삼성전자	전기,전자	17.3	휴젤	KOSDAQ	2.4
SK하이닉스	전기,전자	8.9	현대모비스	운수장비	2.4
셀트리온	의약품	4.9	테크윙	KOSDAQ	2.3
두산에너지빌리티	기계	2.8	하나금융지주	금융업	2.3
더존비즈온	서비스업	2.5	와이즈엔터테인먼트	KOSDAQ	2.1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C : 총 연 0.8% (판매 0.535%)
 - 클래스 C-E : 총 연 0.533% (판매 0.268%)
 - 클래스 C-F : 총 연 0.295% (판매 0.03%)
- (공통사항)
운용 0.23%, 신탁 0.02%, 사무관리0.015%

선취수수료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10월 KOSPI는 전월 대비 -1.43% 하락한 2,556.15pt, KOSDAQ은 2.73% 하락한 743.06pt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호조와 중국 부양책 발표 기대감으로 상승하며 출발한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가 예상 대비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자 외국인 투자자의 공격적인 매도가 이어지며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및 양호한 성장률 전망을 근거로 10월 금통위에서 25bp 인하 단행했으나, 내수 경기 및 가계 대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시장은 다소 혼재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금리 인하 사이클 도입 구간에서 견조한 이익 성장을 나타내는 기계, 증권, 보험, 엔터투어 업종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도체 성장률 둔화 및 전방 수요 부진 우려에 따라 화장품, 자동차, 전자부품, 화학 등 업종이 부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월 대비 약세를 나타내며 1,383.3원으로 마감했고, WTI 기준 유가는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하며 69.26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동기간 국내 기관투자자는 76억원, 외국인투자자는 4.7조원을 순매도했으며 개인투자자는 4.4조원 순매수했습니다.

10월 미 채권시장은 중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 9월 고용지표 서프라이즈에 금리가 상승하며 출발했습니다. 이후 연준 위원들의 점진적인 금리 인하 기조 언급 이어지는 가운데 추가 빅 컷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 월 중반 이후 트럼프 후보 지지율이 상승하며 트럼프 리스크 재현 우려에 약세 흐름이 지속됐습니다. 국내 채권시장은 대외금리 상승 흐름에도 불구하고 국채 편입 확정, 10월 금통위 기준금리 25bp 인하, 국내 3분기 성장률 쇼크 기록 등 성장 둔화 우려 등으로 금리 상승 폭이 제한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국고 3년 금리는 전월대비 12.5bp 상승한 2.93%, 10년 금리는 10.3bp 상승한 3.095%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11월 국내 증시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전월 대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 10월 비농업고용은 허리케인, 운송업체 파업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부진했으나, 실업률 및 노동부 고용지표는 지속적으로 정상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10월 물가지표 또한 전월 대비 완만한 상승폭을 유지하며 미국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및 국내 증시의 하방이 지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국 10월 수출은 전년 대비 4.6% 성장하며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 높은 기저(基底)로 인해 수출 성장은 일시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의 투자 계획 상황 조정이 이어지면서 시관련 반도체 및 전자부품 수출은 양호한 성장을 이어갈 것입니다. 더불어 하반기 국내 증시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업종의 2025년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이 마무리되며 국내 증시는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합니다.

글로벌 물가 둔화 흐름 확인되며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금리인하 폭이나 속도는 국가별로 다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연준은 9월 FOMC에서 빅 컷 이후, 11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채권시장은 현재 국고채 금리가 전구간에서 정책금리 1회 인하를 반영한 수준인 2.95~3.10% 내외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이후 내년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으로는 10월 정책금리 인하 이후, 11월 금통위에서 연속적인 인하 기대는 희석된 상황이나 예상치를 하회한 국내 3Q GDP 결과, WGBI 편입에 따른 안정적인 외국인 수요, 내수 부진과 수출 고점 인식으로 인한 경기 부진 심화 등 금리 하락 요인 우세한 상황입니다. 주요 기금 환매, 내년 국채 발행량 증가 등 수급 상 우려는 지속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금리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최근 11월초 미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은 변동성 확대 요인입니다. 시장은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채는 추가 상승 가능성 있으나 국내 금리는 전반적인 보호 무역주의 강화로 국내 경기 영향은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금리 상승 압력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월 중 국고 3년 기준 2.75~3.05% 전망, 국고 10년 기준 2.90~3.20% 사이 움직일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월 초 미국 대선 및 FOMC 등 이벤트로 시장 변동성 확대 및 트럼프 당선 시 금리 상승 가능성 있으나 상승 폭 제한 가능성으로 금리 레인지 상단 접근 시 듀레이션 확대 대응할 계획입니다.

9월 FOMC에서 50bp 인하와 더불어 장기중립금리 추정치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미10-2년 스프레드 역전 해소 이후 스티프닝 진행 중입니다. 국내 시장 또한 내년 초 기준금리 인하 기대 지속, 보험사 할인을 규제 유예 검토 중, 세수 부족 이슈, 주요 기금 대량 환매 등 전반적으로 커브 스티프닝 압력이 우세한 국면입니다. 다만 연말까지 발행 부당 축소로 장기물 금리 상승 압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국고 10-3년 스프레드 10~30bp, 국고 30-10년 스프레드 -20~-5bp 전망됩니다. 장단기 스프레드 확대, 축소 요인 혼재로 스프레드 레인지 전망치 상, 하단 접근 시 커브 전략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적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시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